

“유가족들의 염원이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하라”



오월 유가족들이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헌화·분향하고 있다. (2019년 5월 17일)

사진=김양배 기자



광주 북구 망월동 구묘역에서 열린 오월 영령 추모제에서 학살자 처벌을 외치는 유가족들. (1990년 5월 17일)



광주 북구 망월동 구묘역에서 오열하는 오월 유족. (1993년)

폭도와 빨갱이로 덧씌워져 폭압과 감금 등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겪은 오월 유가족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행방불명자... 올해로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이했지만 오월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민주화의 제물이 된 아들과 딸, 가족들 곁에는 항상 오월 어머니들이 있었다. 44년. 그 지나간 세월이 지나면서 유가족들의 이마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한 분 두 분 기다림에 지친 오월 어머니들이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 희생자들의 영령을 달래고, 유가족들의 해원을 위해서는 더 늦기전에 5·18정신을 헌법 전문(前文)에 반드시 수록해야 한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전두환 노태우 구속,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온 오월 유가족들의 40여 년 역사를 화보로 엮었다. 사진 속 일부 유가족은 통한의 세월을 뒤로 하고 끝내 세상을 등졌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하늘에서나마 안온하고 평화롭게 영면하시길 기원한다.



오월 유가족과 시민들이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학살자 처벌, 특별법 및 특별검사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1995년 10월 14일)



전두환씨가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오월 유가족들이 법정 앞에서 5·18 진실을 밝히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을 외치고 있다. (2019년 3월 11일)



안성례 오월어머니 등이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전야제에 소복 차림으로 참석해 행진하고 있다. (2018년 5월 17일)